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가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음악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 미 숙*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의도와 관련하여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음악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예비유아교사 26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적으로 240부를 연구 자료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참여와 음악교수효능감은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음악교수효능감은 가정음악환경과 음악교수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음악참여와 음악교수의도와와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예비유아교사 프로그램의 음악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다양한 음악참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활용하는 교사 스스로의 능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주제어: 음악교수의도, 가정음악환경,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수의도	2. 가정음악환경
3. 음악참여	4. 음악교수효능감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 측정 도구
3. 자료 분석	
IV. 연구 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해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음악을 통해 인성, 창의성, 사회성 등의 심리적·물리적 활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조정은, 2016). 또한 음악은 인간의 삶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고 즐기는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의 음악적 지능은 성장하면서 음악적인 경험과 훈련에 따라 변화하고(Gardner, 1995), 유아기부터 이루어지는 음악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윤영배, 강보라, 2016).

맥컬러(McCullar, 1998)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에서 발견되는 표현능력에 대한 민감성을 뒷받침하는 미적 발달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예술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표현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적인 교실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교사의 가르침, 즉, 교수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태도 기술을 배운다. 교수자가 좋은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 또한 교수의도는 교수자를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들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음악을 가르칠 때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의 정도에 따라 실제 교수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고 발달시켜 정서, 신체, 인지, 언어 등의 전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음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며 음악적 시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사 스스로가 교수의도를 명확히 알고 교수행동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의도는 특정분야의 활동에서 유아들과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술, 이해 등을 증진시키는 교수활동의 기초가 된다(정지인, 2018).

교수의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개인변인인 과거 경험과 훈련, 경력에 따른 연구(김민정, 김지현, 2015; 김양은, 김연하, 2008; 김영실, 2009; 유은영, 2013; 이인아, 2015; Anderson, 2010), 심리적 특성 중 교수효능감과 관계(김민정, 김지현, 2015; 김양은, 김연하, 2008; 김영실, 2009; 문아람, 2015; 유은영, 2013; 이경화, 2016), 교과지식수준과의 관계(박가영, 2016; 조정화, 김경숙, 2013) 등을 보고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수학이나 과학이라는 교과에 초점을 두고 교

수의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교수의도와 관련하여 교수효능감과 개인의 경력, 학력, 경험, 지식수준에 관한 단순영향을 보는 것이 대다수이며, 특히 음악교육에 대한 교수의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음악교수의도와 관련하여 음악교수의도는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혜원(2016)에 따르면 경험은 단순히 한번만 행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연속적으로 함께 발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지원된 음악경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음악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사가 된 후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흡수되어 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음악경험을 가진 유아교사들은 음악 수업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박주연, 2014; 박주연, 이민정, 2015; 방은영, 박찬옥, 2005; 서영미, 2015), 나아가 음악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지현, 2009; 전혜원, 2016). 음악적 경험이 제공된 가정에서 자란 예비유아교사(유미준, 2007; Peter, 2017; Sichivitsa, 2007), 학령기 이전에 가정에서 음악을 자주 경험했던 유아교사(유미준, 2007)는 음악에 대한 익숙함과 편안함이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더 높은 수준의 음악교수효능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악교수효능감은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음악교수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유아교사가 실제 교수 행동 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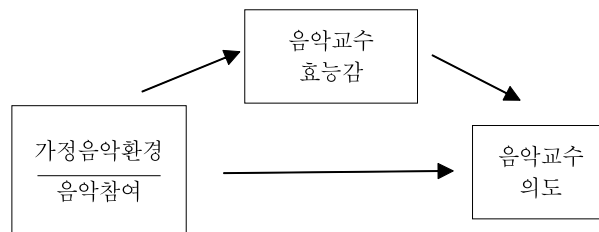
교수효능감은 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신념으로서 교사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학습자인 유아의 수행에 미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김희진, 이분려, 1999; Ashton, 1984; Ashton & Webb, 1986; 우수경, 2015 재인용). 이러한 교수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상황에 따른 특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학습과 성취에 영향을 주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이다(이미숙, 2017).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연구는 궁극적으로 유아에게 질 높은 음악교육환경 제공과 긍정적인 음악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아이젠(Aizen, 1991)의 과거 행동, 습관, 경험, 자기효능감, 정서적 신념을 추가하면 행동이나 행동의도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이진우, 손영곤, 2017 재인용)는 이론을 근거로 현재 측정 가능한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가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고 음악교수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면 유아교육현장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교사가 된 후 질 높은 음악교육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문제

- 1)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이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2)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은 음악교수효능감을 매개로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3)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참여는 음악교수효능감을 매개로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가정음악환경,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 음악교수의도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수의도(Music Teaching Intention)

교수의도(teaching intention)는 교사가 유아들과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개입하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며(Wilcox & Ward, 2004), 음악교수의도는 음악이라는 교과활동에서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교사의 의도와 계획이 수렴되어 수업을 이끌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이다.

아이젠(Ajzen, 1991)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로 정의한다. 행동의도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Ajzen, 1991)에 기초하여 특정행동 및 사물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믿음인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의도와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교사의 행동의도는 교육학에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고(김보람, 천승현, 2018; 이현수, 2014; Teo & Zhou, Noyes, 2016) 각 영역에 따라 교사의 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유아교사의 교수의도와 관련하여 예비유아교사의 과거경험으로 형성된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은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이현수, 2014), 교수효능감과 교수의도와 정적인 영향을 보였고(문아람, 2015; 이경화, 2016), 과학, 수학, 음악과 같은 특정과목의 교수의도와 교수효능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김영실, 2009; 유은영, 2015; 이인아; 서정민, 2017). 그리고 조정화, 김경숙(2013)의 연구에서는 교과지식과 교수의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박진성 외(2004)는 교사의 신념은 의도를 결정하고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다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봄으로써 교육이 내용보다 교사의 의도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최윤선, 2010). 따라서 교수의도는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술, 이해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활동의 기초가 되며(정지인, 2018), 교사가 유아와 상호작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유아교육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음악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아교사는 음악교수의도를 교사 스스로 이해함과 동시에 유아들이 교수자의 본래의도와 일치하게 받아들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와의 음악수업은 다른 교과와 다르게 다양한 신체활동을 포함한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교사는 아이들과 소통할 때 대

상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보살핌과 섬세함이 요구된다. 이 때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교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자칫 수업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고, 교사가 교수의도와 목표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수업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음악교수의도와 관련하여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 참여, 교수효능감을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음악교육을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정음악환경(Musical Environment at Home)

많은 음악교육 학자들은 영유아기 때부터 음악발달에 적합한 음악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박주연, 2014; 박주연, 이민정, 2013; 박진성, 문혁준, 2004; 방은영과 박찬옥, 2005), 특히 영유아의 음악활동을 이끌고 의미 있는 음악체험을 제공해 줄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음악은 오랜 시간 정기적이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기에 예비유아교사가 어렸을 때 부모의 음악지원을 통해 음악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은 유아교사가 된 후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든(Gordon, 2005)은 음악경험을 조성하고 기획하는 대표적인 비정규 주체로 가정을 지칭하고 있다. 가정은 음악성 형성은 물론 음악적 향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음악을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경험을 통해 예술적 향유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경험한 고유의 음악적 기억과 느낌으로부터 음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며(정혜선, 김수영, 2008),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음악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태도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사가 된 후 유아들과의 음악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가정음악환경은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교수의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 가족과 음악을 함께 즐기던 경험은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과 상호긍정적인 정서적 지원으로 연계되어 현재의 음악교수실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이영애, 윤지영, 2015). 또한 가정에서 음악을 자주 경험하고 부모가 음악을 자주 들려주곤 한 유아교사일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았고(유미준, 2007, 이미숙, 2017), 풍부한 음악적 경험이 제공

된 가정에서 자란 예비유아교사가 음악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Peter, 2017; Sichivitsa,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에서 지원된 음악에 대한 좋은 기억과 경험은 교사의 실제 교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아음악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및 가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음악환경은 생활 속에서 잠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도 영향을 주고 유아교사가 된 후 교사의 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 할 수 있다.

3. 음악참여(Music Engagement)

음악참여는 일상에서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을 배우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개인의 열정과 지적, 정서적 헌신을 말하며, 참여는 활동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입과 만족을 포함한다(Chin & Rickard, 2010). 음악참여는 개인의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까지도 강화시켜줄 수 있고,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언어적 감각의 발달 및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최영정, 2008), 지식이 증가되고 자기발달(self-development), 자기조절감(self-regulation)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때때로 치유적 매개체가 되어 인간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김경숙, 2008).

음악참여에 대해 친과 라카르(Chin & Rickard, 2010)는 음악의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신체적 기능에 대한 요소를 문항에 포함하여 음악이 감정, 인지 및 사회적 신체적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또한 음악참여는 감정 조절과 대인 관계기능 향상(Gross & John, 2003), 자기 규제 및 정체성의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North et al., 2000).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고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정신적인 만족과 함께 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의 음악참여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박주연, 이민정, 2013; 윤관기, 2016; 이희진, 2010; 전해원, 2016; Geoffrey, Geoffrey & Julia, 2017; Peter, 2017; Sehriban, 2013). 방은영과 박찬옥(2005)은 음악에의 흥미와 취미생활 즐기기, 자기계발의 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음악참여를 하고 있는 유아교사일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제프리, 제프리, 줄리아(Geoffrey, Geoffrey & Julia, 2017)는 일상에서의 음악참여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교사의 태도는 음악교과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

고, 학생에게 양질의 음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을 활용해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음악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피터(Peter, 2017)는 예비교사 실습 시 질적, 양적인 헌신 등과 같은 음악교육에서 이전 경험이 많을수록 음악교수행동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며 교실에서 다양한 음악관련 활동을 제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참여는 교사가 된 후 교수-학습과정에서 유아의 음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음악참여를 통해 형성된 예비유아교사의 자신감은 음악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음악교수효능감(Music Teaching Efficacy)

교수효능감(teaching efficacy)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반듀라(Bandura, 1977)의 이론에서 출발하였다. 유아교육에서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신념으로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학습자인 유아의 수행에 미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김희진, 이분려, 1999; 우수경, 2015; Ashton, 1984; Ashton & Webb, 1986). 이러한 교수효능감은 교육현장에서 학습과 성취에 영향을 주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다수의 음악교수효능감 연구는 김슨과 템보(Gibson & Dembo, 1984)가 개발한 교사효능감 척도를 토대로 릭스와 에녹스(Riggs & Enochs, 1990)가 과학교수효능감으로 개발한 두 개의 하위요인, 과학교수 개인효능감(personal science teaching efficacy)과 과학교수 결과기대감(science teaching outcome expectancy)을 음악교수효능감으로 수정, 보완하여 연구되어왔다(박주연, 이민정, 2013; 박진성, 문혁준, 2006; 방은영, 박찬옥, 2005; 황인주, 김은정, 2010). 그러나 국내 외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교사효능감척도임에도 불구하고 김슨과 템보(1984)의 척도는 현재 그 하위요인들이 타당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김선영, 이경옥, 2005; 김연하, 김양은, 2008).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반듀라의 결과기대를 교사 자신의 행동에 관한 결과기대가 아닌 일반적인 교육의 효과나 불특정한 교사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묻는 문항들이 있어 반듀라의 결과기대 개념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지

적이 있어왔다(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1; 김연하, 김양은, 2008 재인용). 또한 효능감은 단일한 속성이 아닌 여러 영역에 걸친 개인의 능력들에 관한 신념체제이기 때문에 다 영역적(Multi-domain)접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김연하, 김양은, 2008). 이러한 주장은 음악교수효능감의 척도는 음악이라는 특수한 교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효능감을 측정해야 한다는 이영석, 이경민과 한석실(2001)의 연구와도 맥락을 함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윤과 에반스, 스트로벨(Yoon & Evans, Strobel, 2014)의 연구를 토대로 음악교수효능감을 4가지 하위요인(음악교육내용지식 자기효능감, 음악참여 자기효능감,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음악교수 결과기대)으로 구성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음악교육 내용지식 자기효능감은 음악수업 환경에서 유용한 음악 지식을 기반으로 유아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음악을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하며, 음악참여 개인효능감은 음악을 가르치면서 유아들을 참여시키는 능력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음악활동 중 다양한 유아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믿음을 의미하며, 음악교수 결과기대는 유아의 음악 학습에 대한 가르침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하위요인은 음악교수효능감의 다면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아들의 음악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수과정에서 유아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유아들의 행동과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1일부터 6월20까지 충청남북도 지역의 3년제와 4년제 유아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6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256부를 회수하여 98.4%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0부를 연구 자료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가정음악환경

가정음악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정혜선, 김수영(2008)이 사용한 가정의 심리적 음악환경 도구 16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문항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가족은 자동차로 이동할 때 음악을 자주 듣곤 했다.” “내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 자장가나 동요를 불러 주시곤 했다.” “내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 노래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콘서트나 연주회에 가곤 했다.” 등과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경험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음악환경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05였다.

2) 음악참여

음악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친과 라카르(Chin & Rickard, 2010)에 의해 개발된 The Music USE(MUSE) Questionnaire: An Instrument to Measure Engagement in Music는 음악사용의 양적질문을 묻는 8문항과 음악참여에 관한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변안하고 현직교수2인과 함께 내용을 2차에 걸쳐 수정·보완하여 음악참여에 관한 5개요인 중 사회관계(Social Connection) 7문항, 인지와 감정조절(Cognitive and Emotional Regulation) 9문항, 신체훈련(Physical Exercise) 5문항, 율동(Dance) 7문항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보완된 문항은 사회관계는 “나는 소셜 미디어나 음악/음원 사이트 등을 통해 친구들과 음악을 공유한다.” “좋아하는 음악장르가 같으면 친구를 더 많이 사귄다.” 등의 문항이며, 인지 및 감정조절은 “나는 목욕 중에 흥얼거리거나 음악을 듣는다.” “나는 힘들 때 특정 음악을 듣는다.” 등의 문항이며, 신체훈련은 “나는 운동을 할 때 음악을 듣는다.” “음악은 운동을 할 때 지구력을 향상 시킨다.” 등의 문항이며, 율동은 “어떤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때 즐거움을 느낀다.” 등의 문항이다. 이 중 율동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은 어렵다.”의 문항은 역코딩으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음악참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12였다. 하위영역별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음악참여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음악참여	사회관계	7문항(5점 척도)	.610
	인지 및 감정조절	9문항(5점 척도)	.857
	신체훈련	5문항(5점 척도)	.876
	운동	7문항(5점 척도)	.845
	음악참여 전체	28문항	.912

3) 음악교수효능감

음악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윤과 에반스, 스트로벨(Yoon & Evans, Strobel, 2014)에 의해 개발된 Teaching Engineering Self-efficacy Scale(TESS)을 연구자가 번안하고 현직교수 2인과 함께 내용을 3차에 걸쳐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수업’이라는 용어를 ‘음악수업’으로 대체하여 음악교수효능감 검사도구 MTES(Music Teaching Efficacy Scale)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효능감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특정영역대신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대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박진성, 문혁준, 2006 재인용) 주장에 근거하여 4개의 하위영역인 음악 교육 내용지식 자기효능감(9문항), 음악참여 자기효능감(4문항),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5문항), 음악교수 기대결과(5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보완된 문항은 “I can encourage my student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when participating in engineering activities”의 12번 문항을 “나는 음악수업을 통해 유아들이 서로 교감하도록 할 수 있다.”, “I can encourage my students to think creativity during engineering activities and lessons.”의 13번 문항을 “나는 유아들이 음악수업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이다. 각 문항은 6점 평정척도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957였다. 하위영역별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는 <표 2>과 같다.

<표 2>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와 신뢰도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육내용지식 자기효능감(KS)	9문항(6점 척도)	.932
	음악참여 자기효능감(ES))	4문항(6점 척도)	.903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DS)	5문항(6점 척도)	.884
	음악교수 결과기대(OE)	5문항(6점 척도)	.888
음악교수효능감 전체		23문항	.957

4) 음악교수의도

음악교수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아이젠(1991)은 행동 수행 의도가 있는지,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지, 행동을 수행 할 계획이 있는지를 통해 행동의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나는 ~ 를 참여할 것이다.”, “나는 ~ 할 계획이다.”, “나는 ~ 할 예정이다.”, “나는 ~ 할 것이다.”의 문장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이라는 영역에 맞추어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음악교수의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894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음악 가정환경, 음악활용(MUSE)과 음악교수의도 관계에 음악교수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3단계 조건을 단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1. 변인 간 상관관계를 통한 모형 검증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 음악교수의도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각 측정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측정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은 .32~.8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상관관계 분석에서 단순 상관계수는 모두 .7 이하(하위 요인과 전체 값과의 상관계수 제외)로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이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이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교수효능감은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의도에 영향($\beta=.43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음악참여도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의도에 영향($\beta=.140$, $p<0.05$)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가정 음악환경은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은 음악교수효능감을 매개로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정음악환경과 음악교수의도 간 음악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1단계인 가정 음악환경은 음악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beta=.467$, $p<0.01$)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가정음악환경이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의도에 긍정적인($\beta=.315$, $p<0.01$)영향을 보이고 있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정음악환경이 .083($p>.05$), 매개변수인 음악교수효능감이 .498($p<0.01$)값을 나타내었다. 2단계에서 회귀계수 .315가 3단계 회귀계수 .083보다 크게 나타났기에 음악교수효능감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가정음악환경의

직접효과가 .083으로 크지 않고,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교수효능감이 완전 매개를 하고 있다.

<표 4> 가정음악환경-음악교수효능감-음악교수의도 간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정단계	검정변수	Beta	t	F	ΔR^2
1단계	가정음악환경→음악교수효능감	.467	8.149***	66.406	.215
2단계	가정음악환경→음악교수 의도	.315	5.126***	26.280	.096
3단계	가정음악환경→음악교수	.083	1.342	49.126	.287
	음악교수효능감 의도	.498	8.057***		
4단계 (계수비교)	.083 < .315				

***p<.001

가정음악환경이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표 5>에
서와 같이 가정음악환경은 음악교육 내용지식 자기효능감(KS, $\beta=.485$, $p<.001$), 음악참
여 자기효능감(ES, $\beta=.400$, $p<.001$),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DS, $\beta=.365$, $p<.001$), 음악
교수 결과기대(OE, $\beta=.354$, $p<.001$) 등 4가지 하위요인에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귀모형식은 음악교육 내용지식 자기효능감은 설명력 23%, $F=73.142$ ($p<.001$),
음악참여 자기효능감은 설명력 16%, $F=45.263$ ($p<.001$),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설명
력 13%, $F=36.519$ ($p<.001$), 음악교수 결과기대는 설명력 12%, $F=34.042$ ($p<.001$)로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정음악환경이 음악교수효능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모형	KS		ES		DS		OE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수	2.430		3.037		2.959		3.226	
가정환경	.501	.485***	.412	.400***	.327	.365***	.333	.354***
F	73.142***		45.263***		36.519***		34.042***	
$R^2(\Delta R^2)$	.235(.232)		.160(.156)		.133(.129)		.125(.121)	

***p<.001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음악교육 내용지식 자기효능감(KS), 음악참여 자기효능감(ES),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DS), 음악교수 결과기대(OE)가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음악참여 자기효능감(ES, $\beta=.290$, $p<.01$)과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DS, $\beta=.258$, $p<.01$)이 음악교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음악참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훈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음악교수 효능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보다 음악참여 자기효능감(ES)이 음악교수의도에 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형은 31%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모형식에도 $F=27.269(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음악교수효능감 하위요인이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B	Beta	t
(상수)	1.847		7.866***
KS	.112	.137	1.629
ES	.238	.290	3.223**
DS	-.070	-.075	-.957
OE	.232	.258	3.059**
F	27.269***		
$R^2(\Delta R^2)$	.317(.305)		

** $p<.01$, *** $p<.001$

<표 3>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N=240)

	평균	표준편차	가정 음악 환경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					음악 교수 의도
				사회관계	인지 및 감정조절	신체 훈련	운동	전체	KS	ES	DS	OE	전체	
가정음악환경	3.29	.76	1											
음악참여	사회관계	3.41	.66	.442**	1									
	인지 및 감정조절	3.81	.67	.449**	.616**	1								
	신체훈련	3.93	.73	.397**	.534**	.689**	1							
	운동	3.66	.82	.392**	.630**	.609**	.621**	1						
	전체	3.70	.61	.495**	.813**	.855**	.845**	.862**	1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육 내용지식 자기효능감(KS)	4.08	.79	.485**	.564**	.443**	.405**	.489**	.561**	1				
	음악참여 자기효능감(ES)	4.39	.78	.400**	.465**	.382**	.355**	.437**	.485**	.729**	1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DS)	4.03	.68	.365**	.482**	.444**	.356**	.453**	.512**	.630**	.602**	1		
	음악교수 결과기대(OE)	4.32	.72	.354**	.377**	.387**	.329**	.324**	.417**	.616**	.706**	.664**	1	
	전체	4.21	.64	.467**	.549**	.479**	.420**	.495**	.574**	.870**	.887**	.829**	.861**	1
음악 교수 의도	4.07	.64	.315**	.315**	.404**	.330**	.343**	.411**	.460**	.527**	.357**	.497**	.536**	1

**p<0.01

4.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참여는 음악교수효능감을 매개로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음악참여와 음악교수의도 간 음악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1단계인 음악참여는 음악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beta=.574$, $p<0.01$)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음악참여가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의도에 긍정적인($\beta=.411$, $p<0.01$)영향을 보이고 있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음악참여가 .154($p<0.01$), 매개변수인 음악교수효능감이 .448($p<0.01$)값을 나타내었다. 2단계에서 회귀계수 .411은 3단계 회귀계수 .154보다 크게 나타났기에 음악교수효능감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2단계의 회귀계수 .411이 3단계의 회귀계수 .154보다 크기에 음악교수효능감이 부분매개하고 있다.

<표 7> 음악참여-음악교수효능감-음악교수의도 간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정단계	검정변수	Beta	t	F	ΔR^2
1단계	음악참여 → 음악교수효능감	.574	10.803***	116.713	.326
2단계	음악참여 → 음악교수의도	.411	6.9626***	48.464	.166
3단계	음악참여 → 음악교수	.154	2.334***	51.686	.298
	음악교수 의도 효능감	.448	6.767***		
4단계 계수비교	.154 < .411				

*** $p<.001$

음악참여의 하위요인인 사회관계, 인지 및 감정조절, 신체훈련, 율동이 음악교수 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과 같이 음악참여가 KS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사회관계($\beta=.390$, $p<.001$)와 율동($\beta=.177$, $p<.05$)이고, ES에는 사회관계($\beta=.283$, $p<.001$)와 율동($\beta=.196$, $p<.05$)이었다. 이 두 요인 중 사회관계가 율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DS에는 사회관계($\beta=.262$, $p<.01$)와 율동($\beta=.195$, $p<.05$), 인지 및 감정조절($\beta=.188$, $p<.05$)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세 요인들 중 사회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OE에는 사회관계($\beta=.195$, $p<.05$)와 인지 및 감정조절($\beta=.199$, $p<.05$)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지 및 감정조절이 사

회관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형은 18%~34% 사이의 설명력을 보이며 회귀모형식은 $F=13.300\sim 32.011(p<.001)$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음악참여 하위요인이 음악교수효능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모형	KS		ES		DS		OE	
	B	베타	B	베타	B	베타	B	베타
상수	1.392		2.110		1.911		2.417	
사회관계	.466	.390***	.337	.283***	.271	.262**	.212	.195*
인지및 감정 조절	.077	.066	.071	.061	.190	.188*	.212	.199*
신체 훈련	.045	.042	.043	.041	-.032	-.034	.061	.062
운동	.171	.177*	.189	.196*	.163	.195*	.036	.042
F	32.011***		20.102***		23.493***		13.300***	
R ² (ΔR ²)	.353(.342)		.255(.242)		.286(.273)		.185(.171)	

*p<.0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이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가 음악교수효능감을 매개로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이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음악참여와 음악교수효능감은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음악환경은 음악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음악교수효능감이 음악교수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수효능감과 교수의도는 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양은, 김연하, 2008; 김영실, 2009; 유은영, 2013, 이경화, 2016)와

같은 맥락이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유아교사는 유아의 음악적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 음악을 가르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준비됨은 자신감으로 이어져 음악교수행동의 기초가 되는 음악교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악수업 환경에서 유용한 음악 지식을 기반으로 유아들의 학습을 촉진시키고, 유아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하여 유아가 능동적으로 음악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음악을 가르칠 때 유아와 좀 더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음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산만한 유아의 행동에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음악교수의도에 긍정정인 영향을 준 것이라 사료된다.

음악참여도 음악교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매개체가 되며(김경숙, 2008), 인간의 정서와 사회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최영경(2008)의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한다. 또한 일상에서 음악참여를 통해 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인지와 감정을 조절하고 음악교수 시 유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음악교수 효과성을 높이는 음악교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음악참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향후 음악교수의도를 높여 양질의 음악교육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정음악환경은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거 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음악경험은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태도와 관련하여 음악교수실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유미준, 2007; 이미숙, 2017; 이영애, 윤지영,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반되는 연구의 결과는 음악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악은 가정에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즐거움도 있지만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쌓이기까지는 개인의 꾸준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가정에서 지원되는 심리적 음악환경만으로는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실제 역량개발을 위한 악기연주, 노래하기 등의 지속적인 별도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계기로 하여 가정음악환경 및 경험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이 흡수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의도를 긍정적으로 자극하고 지원할 만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을 시

사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은 음악교수효능감을 매개로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음악교수효능감은 가정음악환경과 음악교수의도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유아교사의 좋은 가정음악환경은 음악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음악교수효능감을 매개로 음악교수의도가 증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념, 과거행동, 습관, 도덕규범, 자기효능감, 정서적 신념 등이 행동이나 행동의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이진우, 손영곤, 2017), 어릴 적 긍정적인 가정음악환경이 제공된 유아교사는 더 높은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을 나타내고(유미준, 2007; Peter, 2017; Sichivitsa, 2007), 교수효능감은 교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문아람, 2015; 이경화, 2016).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음악교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유아에게 바람직한 교육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유아 음악수업은 전문적인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음악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따라서 유아교사의 적극적인 교수의도는 교사-유아간의 호의적인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어 유아가 음악을 즐기고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음악환경이 음악교수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음악환경은 음악교수효능감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중 음악교육 내용지식 자기효능감($\beta=.485$, 설명력=23%)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음악경험이 음악에 대한 기초지식과 소양을 쌓는데 도움을 주어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져 음악교수 내용지식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과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음악참여 자기효능감과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음악교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음악참여 자기효능감이 음악교수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음악 교수 시 유아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유아들의 행동과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방은영, 박찬옥(200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교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훈

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준 것은 유아가 음악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산만한 행동에 대해 대처를 잘 할 수 있다는 교사의 믿음이 교수 의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참여는 음악교수효능감을 매개로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음악참여는 음악교수의도에 음악교수효능감이 부분매개를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에서 음악에 흥미를 가지고 취미 생활 및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유아교사가 음악교수효능감이 높다는 연구의 결과(방은영, 박찬옥, 2005)를 지지한다. 음악참여는 음악의 기술적인 습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음악을 통해 사람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감정적 교류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직 미성숙하고 감정적 배려가 필요한 유아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기에 음악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음악참여는 음악교수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음악 교수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음악참여의 하위요인이 음악교수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음악교수효능감의 내용지식 자기효능감과 음악참여 자기효능감, 훈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음악참여 하위요인은 사회관계와 율동이고, 이 중 사회관계가 율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은 혼자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동아리나 밴드, 합창 등의 활동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중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 음악교수효능감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음악수업은 음악이라는 과목특성과 유아의 발달을 이해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은 음악수업 중 음악과 함께 율동을 함으로써 좀 더 신나고 즐겁게 음악수업에 몰입할 수 있고 유아의 음악수업 효율성을 향상시켜 음악에 대한 교사의 효능감도 상승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교수 결과기대는 사회관계와 인지 및 감정조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중 인지 및 감정조절이 사회관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참여는 개인의 지식증가와 자기발달, 자기조절감을 향상시킨다는 김정숙(2008)과 언어적 감각의 발달 및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다른 영역에서의 능력까지도 강화시켜준다는 최영경(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음악참여를 통해 음악지식을 습득하고 교사 스스로의 인지 및 감정조절의 향상은

음악 수업 중 가르침의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음악교수 결과기대를 상승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사가 된 후 음악교수행동을 예측하고자 음악교수의도와 관련하여 예비유아교사의 가정음악환경과 음악참여, 음악교수효능감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음악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참여와 음악교수효능감은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음악교수효능감은 가정음악환경과 음악교수의도와 관계에서 완전매개, 음악참여와 음악교수의도와 관계에서는 부분매개를 하였다. 즉, 음악교수의도는 단순한 교육을 통한 외부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인 음악교수효능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비유아교사가 일상에서 음악참여를 통해 음악을 즐기고 활용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음악교수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경력이 시작되기 이전, 대학에서 제공되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에서는 음악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음악경험의 제공과 함께 음악참여를 통해 음악을 즐기고 활용하는 교사 스스로의 능동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참여와 음악교수효능감은 음악교수의도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음악참여와 음악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직전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향후 분석에서는 인과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통계방법이나 질적 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수의도를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가 된 후 음악교수행동 실재는 어떠한지 포괄적인 확장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 김민정, 김지현 (2015). 어린이집 영아반 및 유아반 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97-114.
- 김경숙 (2008). 음악치료 교양수업 수강생들의 심리안녕과 음악치유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보람, 천승현 (2018). 계획행동이론(TPB)으로 본 대학생들의 교양체육에 대한 인식과 의도, 그리고 여가시간 운동행동 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7(1), 305-319.
- 김선영, 이경옥 (2005). 유아교사의 교수 효능감 개념과 측정구조에 대한 분석. **유아교육연구**, 25(3), 267-287.
- 김양은, 김연하 (2008). 교수적극성 예측변인 분석: 교사특성변인, 유아교육기관 근무환경, 교사효능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8(6), 207-228.
- 김연하, 김양은 (2008).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 김영실 (2009). 유아교사의 구성주의적 교육신념, 과학교수효능감과 과학교수적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희진, 이분려 (1999). 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교사내·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16(1), 61-181.
- 문아람 (2015). 누리과정 과학활동에서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 및 과학교수적극성을 예측 하는 요인 규명.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가영 (2016). 현직 유아교사와 예비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 지식, 수학태도, 수학교수효능감 비교.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대학원.
- 박주연 (2014). 유아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지식, 인식, 및 교수효능감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박주연, 이민정 (2013). 유아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지식, 인식 및 교수효능감 관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33(6), 5-20.
- _____ (2015). 유아음악활동에 대한 교사의 지식에 따른 인식과 교수효능감 차이. **유아교육연구**, 35(5), 213-227.
-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학교음악환경의 역할 분석. **음악교육공학**, 8, 153-167.

- 박진성, 문혁준 (2006).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 음악교수 실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9), 9-19.
- 방은영, 박찬옥 (2005). 유치원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에 관한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9(4), 5-30.
- 서영미 (2015). 유아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인식이 음악활동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서정민 (2017). 유아교사의 교육신념, 수학교수효능감, 수학교과교육학지식과 수학교수의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우수경 (2015). 개인변인에 따른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교사효능감 및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95, 105-125.
- 유미준 (2007).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은영 (2013). 유아교사의 과학수업 적극성에 영향을 주는 내적 신념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구조 모형 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5-26.
- 윤관기 (2016).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선 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 의 상관관계 연구. **음악교육연구**, 45(4), 115-136.
- 윤영배, 강보라 (2016). 유아교사의 유아음악관련 직전교육과 교사 재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음악교육공학**, 26, 75-95.
- 이경화 (2016). 보육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상호작용적 교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 (2017).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영석, 이경민, 한석실 (2001). 유아교사 효능감 개념 및 관련 변인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8(2), 181-203.
- 이영애, 윤지영 (2015). 유아교사의 음악적 경험에 관한 기억과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9(3), 169-193.
- 이인아 (2015). 보육교사의 놀이성과 음률지도 적극성: 음률활동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이진우, 손영곤 (2017). 계획된 행동이론의 확장은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국내 학술지 대상 메타분석을 통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정교화를 위한 시론*. **광고PR실학연구**, 10(3), 217-243.
- 이현수 (2014).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예비체육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지도

- 행동의도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3(4), 825-835.
- 이희진 (2010). 유치원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과 음악활동 실제 :경력, 학력 연수 경험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혜원 (2016). 중등 음악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지인 (2018). 유아의 교수의도성 이해수준, 마음이론, 실제 교수활동의 교수의도에 대한 이해의 관계. **아동학회지**, 39(3), 19-31.
- 정혜선, 김수영 (2008). 가정환경변인과 유아교사변인이 유아의 음악적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25-137.
- 조정은 (2016). 음악듣기와 음악활동 경험이 음악적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공학**, 28, 107-127.
- 조정화, 김정숙 (2013). 유아교사의 과학 교과교육지식 수준에 따른 과학 교수적 극성과 과학 불안. **생태유아교육연구**, 18(2), 283-301.
- 최영경 (2008). 유아 음악극 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흥미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 논집**, 12(4), 89-109.
- 최윤선 (2010). 수업의 일상적 구조와 교사의 수업변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황인주, 김은정 (2010). 교사의 변인, 음악교수효능감과 영유아의 음악적 성향의 관계. **이화음악논집**, 14(2), 167-192.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ndrea Watson Anderson, B. S. (2010). *Teachers' perceptions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learning programs*.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 Ashton, P. T. (1984).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9(5), 28-32.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Chin, T. C., & Rickard, N. S. (2010). The Music use (Muse) Questionnaire: An Instrument to Measure Engagement in Music. *Music Perception*, 29(4), 429 - 446.
- Gardner, H (1995). Reflections on Multiple Intelligence : Myths and Messages. *Phi Delta Kappan*. 76: 200-209.
- Geoffrey, M. L., Geoffrey, W. L., & Julia, E. M. (2017). Preservice primary teachers' experiences and self-efficacy to teach music: Are they ready?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27(2), 314-329.
- Giobon, S., & Dembo, M. H.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559-582.
- Gordon, E. (2005). 음악에서의 학습 연속: 기교, 내용 그리고 패턴(Yi, H. K 역). 하남: IEC Music English 출판부. (1997년 원저 출판).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McCullar, C. K. (1998). Integrated curriculum: An approach to collegiate preservice teacher training using the fine arts in the elementary classroom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9, 0643.
- North, A. C., Hargreaves, D. J., & O'Neill, S. A. (2000). The importance of music to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255-272.
- Peter, D. V. (2017). Self-efficacy and music teaching: Five nar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 18(4), 1-24.
- Sehriban, K. (2013). An investigation of music teaching self-efficacy levels of prospective preschool teachers.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8(12), 897-900.
- Sichivitsa, V. (2007). The influences of parents, teachers, peers and other factors on students' motivation in music.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29(1), 55-68.

- Teo, Timothy; Zhou, Mingming ; Noyes, Jan(2016). Teachers and technology: development of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12, Volume 64, Issue 6.
- Tschannen-Morgan, M., Woolfolk-Hoy, A., & Hoy, W. K. (2001). Teacher efficacy: Its meaning and measur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8(2), 202-248.
- Wilcox-Herzog, A. & Ward, S. L.(2004). Measuring teacher's perceived interactions with children: A tool for assessing beliefs and inten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 Practice*, 6(2).
- Yoon, S. Y., Evans, M. G., & Strobel, J. (2014). Validation of the Teaching Engineering Self-Efficacy Scale for K-12 Teacher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103(3), 463-485.

ABSTRACT

**The Effect of the Musical Environment at Home and the Music Engagement of the Pre-service Childhood Teachers on Music Teaching Inten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Music Teaching Efficacy**

Lee, Mi-sook

In relation to music teaching intention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musical environment at home, the music engagement, and the music teaching efficacy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usic teaching efficacy. For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survey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260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finally, 240 copies were used as the research materials. To analyze the data,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by using the PASW 18.0 program. The result shows that the music engagement and the music teaching efficacy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ad the influences on the music teaching intention. Regarding the music teaching efficacy, it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al environment at home and the music teaching intention, and it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 engagement and the music teaching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mply that a plan for increasing the music teaching efficacy and the proactive endeavors of the teachers to enjoy and use music through diverse musical engagement in daily lives must be sought after.

Key words: the music teaching intention, the musical environment at home, the music engagement, and the music teaching efficacy.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5일(10월 11일), 게재확정일: 11월 12일